

# 전국개인택시-연합회신문

여름호 | 2016년 7월 1일

발행인 유병우 회장  
 편집인 오홍렬, 이성운  
 발행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편집대행 (주)석유가스신문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7길 55 | 전화 : 02)557-7351~2 | 팩스 : 02)554-7359

<2016년 여름호 유병우 회장 인사말>

## “국회 상대로 택시제도 법령 개선에 역량 집중할 터”

존경하는 16만 4천 사업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신록이 짙어가는 계절입니다.  
 연중 관계없이 황사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업자 여러분의 건강이 매우 걱정 됩니다.  
 4·13총선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민심은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협치’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 이었다고 봅니다.



▲ 유병우 회장은 20대 국회 맞아 택시제도 개선 법령 개정에 16만 사업자와 함께 연합회 역량 집중을 다짐했다.

지난 5월 31일 20대 국회가 개원되어 6월 9일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에 선출돼 전반기 여소야대 국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금까지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조정자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유능한 갈등 관리와 사회통합의 촉매 역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사와 같이 과거 국회와는 전혀 다른 20대 국회가 되어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택시 또한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연합회도 20대 국회를 맞이하여 시·도 조합 및 사업자 여러분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대국회, 대정부 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첫째, 택시제도 개선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택시규제 조항은 폐지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택시감차보상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비지원율을 상향조정하고, 정부예산에 감차보상금 증액을 적극 건의 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로 감차재원을 마련하는 효과와 감차보상 실시로 수입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친환경차량 도입을 추진하여 연료비 부담을 완화 하겠습니다. 플러그인(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 차량 구입에 따른 정부재정지원을 적극 추진

하여 향후 택시영업 경영개선에 대비하겠습니다.

연합회와 시·도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이상과 같은 사업은 사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사업자 여러분!

택시업계가 장기간 불황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매일수룩 사즉생의 각오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와 업계가 공동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는 개인 뿐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택시는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여 맨처음 이용하는 대표적인 운송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연합회에서는 (재)한국방문위원회와 ‘K스마일 캠페인’ MOU를 체결하고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전체사망 사고의 40%를 차지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사업용자동차협회,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여러분께서도 개인택시 위상 정립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와 차량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업자 여러분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면을 빌려 다시 한번 국회의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를 위한, 신용대출보다 더 우대받는 대출은 없을까?

현대캐피탈 자동차담보대출이라면 신용대출보다 평균 9%p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고한도 5,000만원 + 최저금리 연 5.9% + 각종 수수료 면제



### 상품안내

- 전화 한 통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대출 가능
- 차량담보가치를 활용한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
- 한도 : 최저 300만원~최고 5,000만원
- 금리 : 5.9~22.9%(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 기간 : 12/24/36/48개월 중 택일
- 근저당 비용 : 없음
- 취급·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연체 이자율 : 17.9~27.9% (고객 대출금리별 차등 적용)

### 혜택

- 개인택시 기사님을 위한 우대금리 적용
- 방문 없이 전화로 대출 가능

### 대상고객 및 차종

- 운행 이력 1년 이상의 개인택시 사업자
- 출고 이후 10년 이내의 본인 소유 택시
- 기타 본인 소유 차량 담보 가능 (승용, RV, 승합, 상용 등)
- 설정 및 압류 차량인 경우, 해지 후 대출 가능

### 이용방법

- 현대캐피탈 전화상담 : 1899-6282 (전문상담원 상담 시 전국 개인택시 공제 조합원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대상고객, 차종,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담 시 확인
- 차량 근저당 설정 후 대출금 송금 가능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준법감사심의필 제160617-083855호(2016. 07. 01~10. 31)

※ 신용대출 금리 비교 예시 : 현대캐피탈 신용대출, 2016년 1~2월 금리 기준

## 우리조합 NEWS

## 서울조합 자가 충전소 개소로 복지 조합 기능 확대

이연수 이사장, “조합원이 실질적인 주인, 복지조합 확대 다짐”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복지충전사업 운영 10여 년 만에 서울조합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물을 건립한 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주인인 충전소가 문을 열고 개소식을 개최한 것이다.

서울조합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조합 마곡충전소에서 800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조합창립 46주년 기념식 및 마곡충전소 개소식을 함께 개최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연수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조합창립 46주년을 맞아 개인택시 월 매출 50만원 증대 원년의 해로 선언하고 더 이상 서울 개인택시가 퇴직자용 용돈택시에 머무를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조합 소유의 충전소가 탄생함에 따라, 그동안 충전소를 임대해 운영해왔던 충전사업에 일대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자평하고 있다.

10여 년 전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충전소가 없던 시절에는 일반 충전소들이 리터당 10원-20원 정도의 지원에 그쳤지만 조합 충전소가 문을 열고 일반충전소가 경쟁에 나서면서 리터당 최고 60원의 지원이 가능해진 상태다.

결국 서울조합 복지 충전소가 경쟁을 유발시키면서 조합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60% 넘는 조합원에게도 혜택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조합 복지 충전소가 10년째 일궈놓은 경쟁체제로 인해



▲ 유병우 연합회 회장(왼쪽에서 다섯번째)과 이연수 서울조합 이사장이 함께 테이프 커팅을 했다.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연간 이익이 180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이 애타게 소원하는 조합소유 충전소가 쉽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충전소 부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2014년 4월 23일 강서구청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신청했지만 주변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사업권 허가

교부가 지연되기 시작했다.

결국 조합원들의 사업허가 촉구 항의시위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를 거쳐 공사 착공이 이루어졌다.

서울조합 이연수 이사장은 “마곡충전소 개소와 함께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조합충전소 이용을 위해 더 많은 복지 충전소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충전사업을 통해 복지 조합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 정책 NEWS

## 우리 연합회, K스마일 캠페인 동참 업무협약 체결

운수종사자 친절 서비스 강화한다



▲ 유병우 회장은 2016년 K스마일 협력단 회의에 참석, 캠페인에 동참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유병우)는 지난 5월 26일 ‘2016 K스마일 캠페인 협력단 회의’에 참석했다.

2016-2018 한국방문해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이하여 범국가적 친절

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K스마일 캠페인’의 확산방안을 협의하고자 개최된 이번 협력단 회의에서는 광역지자체 및 관광유관단체, 민간기업 등 29개 기관이 참석해 그 간의 캠페인 추진경과와 향

후계획을 공유하고 캠페인 추진사례를 소개하는 등 친절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4월 20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

회(회장 박복규)와 함께 K스마일 캠페인에 동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운수종사자의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친절교육 및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 ‘K스마일캠페인’이란?

‘K스마일 캠페인’은 2016-2018 한국방문해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따뜻한 친절과 환한 미소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해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범국민적 친절캠페인이다.

숙박, 음식, 교통, 쇼핑 등 외래관광객 접점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K스마일캠페인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확대하고, 한국관광의 질적 성장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대구조합, 자가충전소 개소식 갖고 복지사업 go go

## 북구 검단동에 자동세차기, 정비공장도 갖추어



▲ 개소식에서 험난했던 공사 과정을 밝히고 자가충전소 개소식을 개기로 조합원 화합을 당부하는 김순락 이사장.

▲ 개소식을 갖고 충전을 시작한 대구개인택시조합 충전소.

대구개인택시조합에서는 지난 6월 21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 북구 검단동 신규충전소에서 성대하게 LPG 충전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서는 조재구 대구시 건설교통위원장, 김대현 대구교통연수원장, 박동관 (주)DGB유페이 대표이사, 서둘식 전국개인택시조합 연합회 부회장 등 각조

합 이사장 및 내·외 귀빈들이 참석해 충전소 개소를 축하했다.

김순락 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그동안 충전소 건립 반대 및 각종 방해 고소·고발 속에서 우리 조합 소유 LPG 충전소를 드디어 개소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하며 충전소 운영의 내실화 및 타이어, 배

터리, 엔진오일 등 자동차 부품 공동구매, 택시미터기 사업 등 조합원 복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대충전소를 직영해온 대구조합은 자가 충전소를 확보하고 복지조합으로 거듭나고 있다.

<대구조합 제공>

## 현대카드M-개인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위한 경제적인 자동차생활카드



**연회비**  
 유류 국내전용 면제  
 일반 국내전용 5,000원(제휴연회비 5,000원, 기본연회비 없음)  
 · 초년도 정상 부과, 차년도 이후 면제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서비스

#### LPG 충전 시 리터당 239원 면세 및 보조금 혜택

- LPG 리터 측정 기준은 국토부, 국제청 기준
- 일 4회 한도
- 부제일 이용권, 1회 충전 한도량 72리터 초과 시 지급 거절
- 충전 회차 1시간 이하건 서비스 제공 불가
- 보조금 혜택 기준은 국토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SK충전소에서 LPG 충전 시 1% M포인트 적립

#### 세이브-오토(선지급 포인트 서비스)

- 현대·기아차 구매 시 30만원까지 선포인트 받아 사용하고 매달 M포인트로 상환하는 차량 구매 프로그램(만기 종료 시 잔액은 익월 일시 청구)

#### 종합건강검진 우대서비스

- 예약 시 40~60% 할인
- 전국 130개 이상 건강검진센터 예약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홈페이지 내 상품 설명 및 약관 참고
- 카드 신청은 전국 시·도 조합 실무 담당자에게 문의
- 카드 이용금액 연체 시 23.5~27.9%의 연체이자율 적용

### M포인트 적립 및 사용

#### 모든 가맹점에서 0.5~2% M포인트 적립

- 세이브-오토(선지급 포인트 서비스) 및 신차 구매 시 별도 적립률 적용 (세이브-오토 이용 시 1,000원당 20 M포인트 적립)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연회비, 제수수료, 이자, 지방세·국세 등 세금 납부액, 도시가스 요금, 대학·대학원 등록금 납부 결제건, 자동납부서비스 이용수수료, 당사의 모든 할인서비스 및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적립 제외

#### 현대·기아차 신차 구매 시 200만 M포인트까지 사용

- 보유하고 있는 현대카드 포인트를 통합하여 1인당 5년간 200만 M포인트까지 사용 가능
- M포인트+세이브-오토 포인트+통장포인트+가족 M포인트+5카도 오토 포인트 +BLUEmembers 포인트 통합 한도
- M포인트 사용은 구매 이전에 적립된 M포인트에 한하며, 해당 차량 구매로 적립된 포인트 사용 불가
- BLUEmembers 포인트는 현대차 구매 시 사용 가능하며, 통합 한도에 포함
- KIA RED MEMBERS 포인트(구 Qmembers 포인트)는 기아차 구매 시 사용 가능하며, 통합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준법감시심의필 제160309-105329호(2016.03.23)

# 20대 국회에 바란다

우리 연합회 16개 이사장의 20대 국회에 대한 소망은 공급 과잉된 택시 면허 댓수를 조속히 감차보상을 실시, 적정 운송여건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압도적이었다.

우리 업계의 열화같은 보상감차 요구가 20대 국회에서 제기되는 것은 여소야대라는 국회 구도와도 무관치 않다.

우리 연합회는 지난 2007년부터 대중교통법 제정을 추진, 드디어 2013년 1월 1일 여·야 국회의원 222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업계의 요망이 실현되지 않는 상태여서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 요망하는 것이다. (편집자 주)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이연수 이사장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택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려는 각 후보들을 이사장이 직접 만나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해 왔다. 특히 조합원과 함께 택시 간담회를 갖고 서명을 통해 택시현안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약속받기도 했다.

20대 국회가 곧 원 구성을 마치게 된다. 이제 택시에게 선언했던 그 약속들이 지켜져야 할 때이다.

택시는 지금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해 감차를 하자는 마당에 O2O 플랫폼 업체들이 공유경제를 표방하며 택시 유사영업에 뛰어들어 택시산업을 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수십 년 묵은 운수사업법을 악용하며 불법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20대 국회는 즉시 택시의 어려움을 감안해 운수사업법에 담겨 있는 법적 모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예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택시감차를 위한 정부의 대폭적인 자원 마련 방안도 즉시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대 국회가 택시산업을 살려내는 국회로, 첫발을 떼길 바란다.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김순락 이사장

변화된 정치!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

재19대 국회가 끝나고 새롭게 출범한 제20대 국회에 대해 전 국민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개인택시관련 많은 법안이 논의되었고 일부 통과된 법안도 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개인택시업계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감차재원 마련을 위한 LPG(연료) 부가세 환급 등 제20대 국회에서 논의될 많은 법안에 대하여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간절한 바람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변화된 정치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합회가 2007년부터 역동적으로 추진했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22명의 국회의원의 찬성으로 2013년 1월 1일 통과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해체된 원통함을 생각하면 LPG(연료) 부가세 환급 등이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



부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박권수 이사장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는 한마디로 국민의 삶은 뒤로하고 오로지 당리당락에만 집중한 현 정치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심판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나라 택시산업은 그간 무분별한 택시 증차와 자가용의 증가, 택시정책의 부재 등으로 영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택시의 경우 하루 14시간 이상의 중노동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수입이 150만원 안팎으로 생존권마저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파산직전에 이른 택시산업을 되살려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보다 나은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과 정치권의 특단의 택시지원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번 20대 국회만큼은 서민중의 서민인 전국 30만 택시종사자와 100만 택시가족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인천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김승일 이사장

개인택시사업자는 영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개인택시사업자가 카드사와 계약하기 힘들어 대표가맹점이 카드사와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부 및 금융감독원이 영세사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을 0.8%로 적용하는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인택시사업자도 카드 수수료율을 0.8% 적용받을 수 있도록 건의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으로 2015년 7월 21일부터 교체 및 장착하는 단말기는 의무적으로 IC결제 인증 단말기로 2018년 7월 20일까지 교체해야 된다. 정부는 IC 결제 인증 단말기 교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 한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택시는 손님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차 운행시에도 통행료를 지불하고 공항에 택시 주차장에 차를 대기하고 손님을 모신다. 이에 택시 빈차시 통행료 면제를 건의한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택시는 손님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차 운행시에도 통행료를 지불하고 공항에 택시 주차장에 차를 대기하고 손님을 모신다. 이에 택시 빈차시 통행료 면제를 건의한다.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백형선 이사장**

20대 국회에서는 영세한 개인택시 사업자의 어려운 현실과 여건을 감안하시어 아래사항이 관철되기를 바란다.

첫째,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의 자율 감차를 논의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이므로 정부의 부담금액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재고 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 둘째, 승객의 택시요금 지급 시 90%이상 사용되고 있는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 결제수수료 전액의 지원을 요구한다. 셋째, 서민과 교통약자 등 국민의 손발이 되어 봉사하는 택시에 사용되는 LPG연료가격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요구한다. 넷째, 영세한 택시 사업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요구한다. 다섯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장되고 있는 택시용 LPG연료에 대한 개별 소비세 및 교육세 경감제도를 일몰기한 연장이 아닌 상시경감이 가능하도록 법률개정을 요구한다.

상기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20대 국회에서는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기원한다.



**대전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김성우 이사장**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분들과 20대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업권에 대한 희망과 요구를 말한다.

택시업계의 최대 과제는 자율감차사업이다.

자율감차사업의 주된 요인은 택시의 공급과잉과 승객의 감소로 인해 운수종사자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LPG 가격 또한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차량유지관리비도 상승하는 등 총체적인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적정대수를 유지하기 위한 자율감차사업은 운수종사자들의 수입증대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존경하는 20대 국회의원 여러분!

감차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는 LPG 부가세 면제법안이 절실하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개인택시 LPG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여 감차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영세한 택시사업자들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건의드린다.



**광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김주원 이사장**

최근 자가 차량의 꾸준한 증가와 대중교통 수단의 발달로 택시의 이용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의 심야버스 도입과 렌터카 가맹사업 확산 등 새로운 대체재까지 등장하여 택시 업계의 생존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요량에 비해 과다한 택시수를 줄일 방편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도급택시'의 진입을 막고 불법여객운송행위의 철저한 단속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주길 바란다.

또한 택시발전법에서 정한 정부나 지자체의 감차보상지원금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생계에 허덕이는 택시운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며 따라서 현재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인 2400만원을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이다.

20대 국회는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기 바란다.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김문옥 이사장**

20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개원했다. 여소야대 국면과 3당 체제는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이 만들어낸 결과로 말 그대로 새로운 국회에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새 정치가 필요한 시기다.

우리 택시 업계도 19대 국회에 택시연료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한 감차재원 마련을 위해 수도 없이 건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4.13 총선 시기에도 여러 후보와 각 정당들에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정책을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이제 구성된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시기 말로만 민생을 외치며 보여주었던 실망스러운 구태정치에서 탈피하여 진정으로 각계각층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선거 시기에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약속이 그저 허울 좋은 공약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20대 국회에서는 서로 잘 협치하여 민생과 사회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예산확보 등의 실질적 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우리개인택시 업계에서 요청했던 숙원사항들도 적극 반영돼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희망을 안고 운전대를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



**충청북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최현태 이사장**

우리가 열망했던 택시의 대중교통으로 하는 법제정 무산의 대안으로 정부에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을 2014년 1월 28일 제정해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고 했다면, 택시 승객의 급격한 감소, 가파른 물가상승, LPG가격의 불안정등으로 개인택시 종사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택시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해결 하여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은 택시의 과잉 공급을 해소하는 국가 정책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비현실적인 감차예산 책정과 택시의 자율감차를 추진하므로써 택시 감차 정책의 혼란만 겪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 감차 재원의 필수적인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 수차례 부족예산을 추가 확보토록 요구하고 있지만 자율 감차만 추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19대 국회에서 LPG 연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감차보상금 재원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을 수차례 건의해 국회의원 입법으로 추진했으나 19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법률안이 성립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되었다. 안타까운 실정이다.



### 충청남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김해경 이사장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4·13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의 풍향을 정확히 읽어 이들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용광로'처럼 녹여내고, 적절한 해법을 찾을 임무가 주어졌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은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20대 국회는 경제 문제의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해결책이 반드시 제시돼야 할 것이다. 특히 택시 성장동력 부재의 해법으로는 택시공급과잉이 주요원인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차재원이 필수적으로 마련돼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LPG판매부가가치세 면제만이 해답일 것이다. 개인택시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택시감차보상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니 20대 국회에서는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지난 19대 국회와는 달리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사라진 정의를 세우고, 경제민주화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하는 국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 경상북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서돌식 이사장

경북의 7천여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20대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개인택시업계는 과거 무분별한 택시정책으로 발생한 과잉공급으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빠져 있다. 이러한 택시과잉공급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택시 감차제도를 재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택시감차제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 마련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의 해결방안으로 총선에서 약속한 개인택시 연료 LPG(부탄)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한 재원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상정하여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

이외에도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경제적 고충과 개인택시업계에 산재한 많은 문제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적극 협력해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생업에 최선을 다하며 승객의 안전과 무한친절 감동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대 국회는 택시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 전라북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박상익 이사장

제20대 총선은 끝났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을 차지하고, 국민의당이 자유민주연합 이후 20년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제3당으로 원내에 진출하는 등 개혁세력의 승리로 끝났다.

개혁세력이 의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제20대 총선은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정치권과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인한 젊은 청년들이 개혁 의지를 바라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은 본인의 욕심을 떠나 국가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본인의 신분 상승과 당파싸움만 일삼는다면 국가의 발전과 미래는 보장 받을 수 없다.

한반도가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일본에 강제 합병 당했고, 남북으로 분단되고, 전라도와 경상도의 갈등 등 IMF로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무능한 정치지도자와 부패한 공무원 때문이었을 것이다. 국가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정치지도자와 공무원에 달려 있다.



### 경상남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이호중 이사장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되는 수출 부진속에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인한 소비심리 위축은 우리 영세한 택시업계 운영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업계에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그나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개인택시 연료에 사용되는 LPG(부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택시총량제에 따른 감차보상금으로 활용되는 제도다.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택시 감차보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택시총량제에 따른 감차가 현실적으로 이뤄져 영세한 택시업계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이를 통한 대 승객 서비스 향상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행복지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개인택시 연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

20대 국회에서는 우리 업계와의 약속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 전라남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여근하 이사장

지난 4.13 총선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의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고 5월 30일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다.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고 우리 연합회와 각 시·도 조합 간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으로 지난 19대 국회 때 계류되어 있던 법안들을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승합 택시 군 지역 확대 도입, 친 환경차 구매 시 구입 보조금 지급 및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LPG 판매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택시 감차보상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최근 택시 과잉공급 등으로 수익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제20대 국회! 이번에는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 하나 하나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민생 관련 법안은 여·야가 협상과 타협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정상의 국회가 되어 우리 국민들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참된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제주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이치헌 이사장

먼저 20대 국회의 개원을 축하하면서 여소야대로 선택한 국회가 생산적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현재 택시업계의 최우선 과제인 감차 사업은 전국적으로 답보상태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결국 사업자 출연금이 문제다.

사업자 출연금을 국고에서 보조받아 감차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개인택시 여러분! 해가 갈수록 택시업계에는 과잉증차, 대리운전, 렌트카, 불법유상운송업 등 많은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전국 16만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민생정치 차원에서 개인택시(연료) 부가가치세 면제와 감차 보상 등 정부의 노력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협치의 차원에서 경영난에 허덕이는 택시 업계에 희망의 불빛이 되기를 소망한다.

www.klpg.or.kr

# 깨끗한 내일을 위해 부르릉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청정 에너지  
더 힘찬 자동차를 만드는 파워 에너지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그린 에너지  
우리에게는 LPG가 있습니다

Clean Energy, Clean Tomorrow

 **대한LPG협회**

김관술 기자의  
라이브 인터뷰

충남조합 김해경 이사장

## 7번 출마하여 7번 당선 진기록 달성 25년동안 천안시지부장 · 충남도이사장으로 똥똥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충남도조합  
김해경 이사장

충남도 조합 김해경 이사장은 1988년 1월 충남에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해 개인택시 업계에 입문했다. 그러니까 28년된 고참 개인택시 사업자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택시로 운전을 하며 돈벌이를 한 것은 고작 3년 밖에 되지 않는다. 김해경 개인택시 사업자도 택시운전이 직업이었다.

그런 그가 택시 핸들을 놓고 천안지부와 충남도 조합 이사장으로 경영인의 삶을 살게 된다.

개인택시 업계에 입문한 지 3년 만에 천안지부 사무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자동차 핸들을 놓고 경영자로 변신한다.

이후 천안시 지부장에 3번 출마하여 3번 당선되고, 충남도 이사장에도 3번 출마하여 3번 당선된 무패의 기록을 만들었다.

7번 출마하여 7번 당선되어 올해로서 25년을 경영자로 일하는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는 김해경 이사장을 6월 22일 충남조합 이사장실에서 만나 특별한 그의 인생 역정을 들어 본다.

**Q** 천안시 지부장이나 충남도조합 이사장은 조합원이 뽑는 선출직이어서 25년동안 똥똥하기 힘들텐데,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A** 나도 지난 25년을 돌아보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번째 출마가 천안시 지부장이나 충남도조합 이사장처럼 큰 직책이 아닌 사무장이어서 첫번째 선거를 통과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그럼 천안시 지부장은 어떻게 관문을 통과했는지요.

**A** 사무장을 하면서 조합원들의 애쓰는 노력을 보면서 지부가 조합원을 위해 어떻게 경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소위 조합원을 위한 복지를 생각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조합원들의 눈에는 제가 적격자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무장 임기를 마칠 때 주변에서 지부장 출마를 권유해 망설이다 출마를 결심했지요. 그런데 의외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경쟁자가 없어 단독 입후보자가 됐지요. 당선은 따는 당상이었지만 그래도 신임투표를 할 것을 요청, 투표결과 96%의 찬성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Q** 사무장 때부터 복지조합 청사진을 그리면서 준비해온 덕분에 1995년에 지부장에 취임해 1년만에 자가 충전소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요.

**A** 그렇습니다. 사무장을 하면서 자가 충전소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게 되었지요.

지부장에 취임하고 얼마되지 않아 대의원과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5대의 관광버스에 나눠타고 부산조합을 견학하러 갔지요. 대규모 조합이라고 감탄하면서도 충전소가 눈에 띄지 않았습다. 저는 우리 지부에 충전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돌아와서 자가 충전소 계획을 제시하고 찬동세력을 규합했는데 600여명의 조합원 중 330명이 찬성해 400만원씩 출자금을 받아 13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천안지부가 경영하는 충전소를 매입, 복지지부의 깃발을 올렸지요.

김 이사장은 "매입한 충전소가 부지가 500평밖에 되지 않아 부근 땅 500평을 추가로 매입해 세차장, 정비공장 등을 만들어 나름대로 복지지부를 완성했는데 일부 조합원이 사직당국에 투서를 하여 무협의를 받아내는데 3년이 걸렸다"고 회상하면서는 표정이 어두워졌다.

**Q** 첫번째 지부장 선거는 단독입후보였는데 두번째, 세번째도 무투표 당선이었나요?

**A** 복지조합을 만들면 전조합이 환영할 줄 알았는데 투서하는 조합원이 나타난 탓인지 경쟁자가 나왔지요. 그러나 압도적 표차로 조합원들의 신임을 계속 받아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 시군 지부장과 함께 선수들에게 축구공을 나누어 주는 김이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





▲ 지부 대항 이사장기 촉구대회에서 선전과 화합을 당부하는 김 이사장.

그 때는 지부가 가족과 함께 사는 집보다 더 애정이 생겼습니다.

**Q** 충남도 조합장 출마는 어떤 계기로 하셨는지요.

**A** 유병우 이사장이 연합회장으로 선출돼 공석이 되자 또 주변에서 이제는 도조합 이사장에 출마 하라고 권유하는 바람에 나섰는데 당선돼 지금까지 3선을 하고 있습니다.

도조합 이사장 선거는 지부장이 뽑는 간선제였는데 도내 15개 지부가운데 천안시가 가장 큰 지부인데다 복지지부로 발전시킨 업적이 동료 지부장에게 반영돼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Q** 조합원을 직할하는 광역자치단체 조합과는 달리 시지부와 시·군지부를 통한 간접경영을 하는 도조합과는 구조가 달라 적응이 쉽지 않았을텐데요.

**A** 지부장을 하면서 도조합 이사를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영이 낯설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한 가해져 힘들었지요. 시지부장일 때는 조합원 출입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사장실에는 조합원 출입이 없어 절에 온 느낌이였지요.

그래서 찾아오지 않는 조합원을 기다릴 게 아니라 조합원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는 지부 순례를 하면서 적응했습니다.

시·군지부는 도조합의 산하기관이면서 독립경영을 하는 체제여서 지시하고 간섭하지 않고 협의하고 협조하는 관계라고 김 이사장은 말한다.

2007년 6월 15일 도조합 이사장에 취임해 시·군지부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바쁘게 방문해 2013년 5월까지 자동차 운행기록이 23만km가 넘었다고 밝혔다.

**Q** 그럼 도조합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역할은 어떻게 하였는지요.

**A** 도조합 이사장은 연합회 이사로 연합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충남도내에서 운행하는 전체 조합원의 업권보호를 위한 현안들을 연합회 회의에 상정,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건의하고 입법활동을 하고 충남도청을 상대로 시·군지부 조합원에 대한 도비지원을 따내는 일을 합니다.

조합원을 위한 영상기록장치,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비에 대한 도비 지원이 선행되어야지만 시·군지부도 시·군을 상대로 설치비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도청을 상대한 우리 업계의 업권보호도 해야 되고 도청에 홍보하는 차량 광고를 수주하는 것도 도조합 이사장이 해야 할 업무입니다.

**Q** 이사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역대 도지사 중 어느 분이 상대하기가 편했습니까?

**A** 택시 교통에 대해 이해가 많고 성격이 확끈한 분이 편한 파트너입니다. 이완구 지사는 시원시원한 편이어서 예산지원이나 우리업계 현안 해결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도청 홍보 광고비 지원도 이 지사로부터 받아냈지요.

안희정 현 지사는 간간해서 쉽지 않은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택시업계에 대한 이해가 높아 노후영상기록장치 네비게이션 교체 도비지원을 요청하면 흔쾌히 결제하는 편

이어서 아주 편한 파트너입니다.

**Q**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일을 소개해주세요.

**A**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도비 지원이 선행돼야 시·군비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지부의 노후 영상기록장치와 네비게이션 교체 예산을 확보했고 감차 보상실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은 개인택시 2대와 법인택시 40대를 감차했고 논산시, 서천시, 금산군, 청양군이 시급하여 우선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Q** 7차례 출마해서 7차례 당선을 한 선거 귀재여서 김 이사장의 퇴임 종착역이 보이지 않는데 언제일지는 몰라도 퇴임을 맞게 되게 원점으로 돌아올 계획은 있는지요.

**A**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있고 지금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 일에 집중하다보니 아직은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조합경영자로 나의 인생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사업자라는 직업은 나에게겐 천직이어서 언젠가는 아름다운 퇴장을 하겠지요.

(글·김관술)

### 충남조합 발전을 이끄는 시·군지부장



천안시 김성규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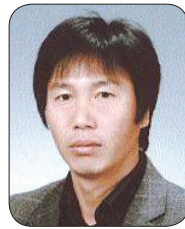
세종시 유학준 지부장



아산시 강준규 지부장



공주시 임선규 지부장



금산군 전경철 지부장



논산시 김용성 지부장



당진시 이재열 지부장



보령시 홍성길 지부장



부여군 이종도 지부장



서산시 이희호 지부장



서천군 노희권 지부장



예산군 황규열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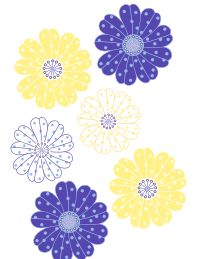
청양군 유철조 지부장



태안군 김용택 지부장



홍성군 조길상 지부장



지부  
탐방

## 전북조합 전주지부

## 조합원 마음에 '복지조합 꿈' 심고 가꾸어

사옥·직영충전소 갖춘 복지 조합 만들 터

전북조합 전주지부  
김윤식 지부장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를 거점으로 2340명의 조합원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펼치고 있는 전주단위조합이 복지 조합으로 태어나기 위해 날개짓을 하고 있다.

전주단위조합은 조합원 규모로 보면 거대 조합인데도 자체 사옥도, 직영충전소도 없는 가난한 조합이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 4년 임기의 제4대 조합장에 취임한 김윤식 조합장은 비록 조합자체 사옥도 없고 직영충전소 하나 없는 가난을 물려 받은 조합이지만 2340명의 조합원이 있어 부자 조합이라고 말한다.

김 조합장은 현실은 가난하지만 성공인자인 2340명의 조합원이 하나로 화합하고 똘똘 뭉치면 사옥도 마련하고 직영충전소도 경영하는 조합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한다.

김 조합장은 취임 후 영똥하게도 조합의 운영목표를 ▲조합원과 소통하는 조합 ▲조합경영이 투명한 조합 ▲조합원에게 공정한 조합 ▲조합원이 하나되는 조합으로 내걸고 조합원들의 화합을 담금질한다.

“우리조합이 복지조합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하나된 조합으로 단합해야 합니다. 화합하는 조합원의 마음에 자체 사옥과 복지충전소 경영의 꿈을 심어놓고 가꾸기만하면 언제든지 복지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70번지 신협 1층에 세들어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만난 김 조합장은 패기와 희망에 차있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의 단결이 시급하고 또한 예산을



▲ 전주 조합원들은 정동영 의원(국민의당)과 환담을 통해 택시 업계의 현안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에 최선을 다해 개인택시업계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니 화합을 일궈낼 수 있는 4대 운영방침을 선정했다'고 말한다.

조합원과 소통의 통로를 넓히기 위해 간담회를 활성화시키고 조합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마음 체육대회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주시에 지원을 요청해놓고 있다.

투명조합을 만들기 위해 조합의 세입·세출 내역서를 만들어 사무실에 공고하고 조합원의 중요 현안은 3개월에 한번씩 열리는 이사회와 1년에 한번 열리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는 원칙을 정해놓고 있다.

## ◆ 조합원 운송 여건 개선 추진

전주시 조합은 농촌으로 둘러싸인 도시인데도 도농복합할증제가 없어 시계를 넘어 농촌지역을 운행할 때 승객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금 시비를 차단하고 운송 수입을 늘리기 위해 도농할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도농할증제가 도입되면 현재 시계를 넘으면서 받는 할증요금 30%가 45%로 확대되어 장거리 운행시 상당한 운송수입이 증가한다.

2340여명 조합원 중 1500명이 참가하고 있는 한옥콜

브랜택시사업이 KT에 위탁·운영되고 있어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위조합운영으로 이관, 조합원의 콜비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매 업체인 전주 신협이 운영하고 있는 부품 사업도 조합이 직영하기 위해 전주 신협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부품판매사업이 실현되고 정비공장을 직영하고, 이동통신대리점을 신설하는 등 작은 복지 사업부터 초석을 다져나가겠다고 김 조합장은 밝힌다.

한편 김 조합장은 2340대의 노후된 영상기록장치를 교체하기 위해 대당 15만원씩 3억7100만원을 전주시에 요청해 놓고 있다.

조합원들의 운송환경 개선을 위해 전주시내 주요 도로 주변과 도청, 혁신도시에 위치한 정부공공기관 주변 등에 택시승강장을 확대하기 위해 전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

김조합장은 취임 후 전주시장을 면담, 10명 규모의 택시정책위원회 신설과 감차위원 구성을 건의했다. 신설되는 택시정책위원회는 2명의 택시업계 인사가 참여해 택시업계현안을 전주시에 반영하는 통로가 만들어진다.

취임 후 비예산 사업에 주력하면서 조합원의 마음에 심는 복지조합의 꿈이 언제쯤 현실이 될지 기대된다.

(글·김관술)



## 강원조합 강릉지부

# ‘다양한 복지사업, 조합원 화합 넘치는 복지지부’

### 똥똥똥똥 707명의 조합원이 만들고 있어요

강원조합 강릉지부는 조합원에 대한 복지가 넘친다. 수익사업인 LPG 충전소를 경영하고 있고 복지관인 지부 사무실 1층에는 헬스장, 탁구장, 기원, 샤워장까지 갖추고 있어 조합원이 휴식과 체력단련을 한다. 2층에는 지부 사무실, 콜센터가 있고 3층에는 150여명이 회의를 할 수 있는 대강당이 있다.

또한 지부 마당에는 LPG 충전소, 4대가 동시에 할 수 있는 셀프 세차장, 진공청소기, 정비공장과 구내식당, 공제지부 사무실이 1058평의 대지에 웅기종기 모여있다.

“지부는 커다란 지붕아래 사랑 가득한 울타리 안에서 조합원이 충전, 세차, 정비, 조합업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휴식도 취하고 체력 단련 활동도 하는 종합 휴식처입니다. 각기 다른 조합원이 모여있는 지부지만 서로 이해하고 상부상조하는 조합원끼리의 단체입니다.”

김병열 지부장의 설명이다.

매일 지부 주차장에는 휴조 조합원들의 차량으로 가득하다. 지부를 휴식처로 생각하는 조합원들이 휴조날이면 지부로 나와 차량정비, 세차 등을 하고 조합원끼리 어울려 교통정보도 교환하고 체력단련을 하면서 생산적인 휴식을 하기 위해서다.

#### ◆ 조합원의 단결로 복지조합 탄생

강릉지부는 역대 지부장들이 복지 사업의 한분야씩을 추진, 후임에게 넘겨주는 전통이 이어진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6대 지부장을 역임한 정석문 지부장은 현재의 지부 부지 1058평을 매입하고 LPG 충전소를 건축해 복지지부의 초석을 다졌다.

정 지부장은 조합원의 단결을 바탕으로 충전소 건축

자금을 준비했다. 전 조합원이 총전하는 조건으로 거래 충전소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조합원에게 분배해주지 않고 저축해 6000만원을 만들었다. 조합원들도 지부장의 충전소 건립계획에 찬동, 리베이트를 건축자금으로 내놓아 충전소 건축은 급진전했다.

지부가 저축한 6000만원에 400여명의 조합원이 15만원씩 출자해 6000만원을 보태고 LG가스로부터 3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받아 1998년 직영충전소를 개소해 복지조합의 서막을 열었다.

또한 2004년 강릉지부를 물려받은 김주원 지부장은 물려받은 충전소를 흑자경영으로 이끌어 가건물인 지부 사무실을 헐어내고 2010년 연건평 180평인 3층 규모의 지부사무실과 셀프주차장, 정비공장 등을 건축해 복지조합의 기반을 조성했다.

강릉지부 지부사무실을 조합원의 복지타운으로 만들기 위해 강원도와 강릉시로부터 각각 2억원을 지원받고 지부가 3억원을 보태어 7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현대식 사옥을 마련했다.

2013년 복지조합을 김병열 지부장에게 넘겨주고 강원도 이사장으로 승진한 김주원 이사장은 “강릉지부가 충전소에서부터 복지타운(지부사무실)을 건축해 복지지부로 탄생되기까지는 변화의 고비 때마다 조합원의 단결된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조합원의 화합과 단결은 발전의 에너지다”라고 자랑한다.

2013년 강릉지부장으로 취임, 복지지부를 물려받은 김병열 지부장도 “강릉지부의 자산은 고루갖춘 복지시설보다도 화합하고 단결해 지부를 믿어주고 있는 707명의 조합원”이라고 말한다.

조합원의 운송수입 증대를 위해 지부경영 콜센터를 운영하는 강릉지부는 별도 법인인 충전소 임대차 계약



강원조합 강릉지부 김병열 지부장

을 맺고 한달에 1400만원씩 임대료를 받아 전 조합원에 30만원씩 7년동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지부의 복지시설이 크게 향상되어 지부의 자산 평가액이 늘어 717명 전조합원이 313만7000원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작아지고 낮아지면서 조합원에 다가가고 투명경영을 하다보니 조합원의 단결은 끈끈해 집니다.”

김 지부장은 지부의 주인은 조합원이라고 말한다.

(글·김관술)



▲ 지부사무실, 헬스장, 탁구장, 기원, 대강당, 콜센터 등 조합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고루 갖춘 강릉지부 사무실.



▲ 1998년 개소된 자가충전소와 세차장, 정비공장 등 복지조합의 위상을 과시한다.



현 행	개 정
1.·2. (생 략) 〈신 설〉	1.·2. (현행과 같음)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야 시간대에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② 관할관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대상 노선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시·도지사)가 면허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5. (생 략) 〈신 설〉	② ----- 제1항제1호 및 제2호----- ----- ----- ----- ----- ----- ----- ----- ----- ----- ----- 1.~5.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한정면허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등 제1항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⑥ (생 략)	④~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야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 및 심야 시간대 고시”를 고시 하였으며, 고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73호

### 심야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신청대상 운송사업자 및 심야시간대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심야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 및 심야 시간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심야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신청 대상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 한다.

**Ⅱ 심야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심야 시간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야 시간대는 22: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되, 관할관청은 이 심야 시간대 범위 내에서 지역내 대중교통 운영 시간, 심야시간대 교통불편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한정면허의 운행시간을 정할 수 있다.

###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

■ 국토교통부는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의 영업형태 등에 적합한 요금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 서비스가 다양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택시 차령을 지자체가 지역별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2016. 4. 20)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내용

- ◆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에 대한 자율 신고요금제 도입
  -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구간요금제, 대절요금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에 대하여 자율 신고요금제를 도입함.
- ◆ “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대형으로 구분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를 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로 규정
- ◆ 차령제도 합리화
  - 원칙적으로 현행 차령을 유지하되, 지자체가 지역별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 국토교통부는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에 대하여 요금, 내외부 표시·장착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고급택시 구분기준을 개선하여 택시 서비스가 고급화·다양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2016. 4. 20)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내용

- ◆ 고급택시 구분기준 개선
  - 고급택시를 배기량과 승차인원으로만 구분함에 따라 배기량이 없거나 작은 친환경 차량은 고급택시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차량은 고급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의 내·외부 장착·표시의무 완화
  - 배회영업을 위주로 하는 일반택시와 달리 사전예약을 통한 영업을 하는 승합택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간요금제 적용, 단체 관광객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의 외부에 ‘자동차의 종류’ 등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하고, ‘미터기’ 등 내부 장착의무도 완화하고자 함.

### 5 택시업계 규제개선 과제 건의

■ 국토교통부로부터 택시업계 규제개선 과제 제출 요청이 있어 연합회는 ▲차령을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제정 ▲승합 대형택시 자율신고제 도입 ▲승합 대형택시 내·외부 표시장착 의무 완화 ▲고급택시 구분기준 개선(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도 고급택시로 활용토록 개선)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허가 간주제 도입 ▲승합 대형택시 승차정원 개선 ▲승합 대형택시 전국 확대 시행 등 건의(2016. 5. 1) 과제를 제출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내용

- ◆ 차령을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제정
  - 대통령령으로 전국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령제도를 각 지자체별로 법령에서 정한 기본차령에 더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조례를 제정

→ 개인택시 차령제도 폐지

◆ 승합 대형택시 자율요금 신고제 도입

→ 승합 대형택시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별도의 운임체계를 갖추어 관광객, 단체 승객에 적합한 요금체계를 적용하여 서비스 다양화, 택시활성화

◆ 승합 대형택시 내·외부 표시장착 의무 완화

→ 승합대형택시의 차량외부에 표시해야하는 자동차 종류, 관할관청, 차량내부에 표지판, 자동차운행정보 보존, 요금미터기, 신용카드결제기, 표시등, 호출설비 등 설치 제외

◆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허가 간주제 도입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처리기간인 15일이 경과 하여 관할관청이 기간 내에 “인허가” 등의 의사표시를 아니할 경우 당연인가로 간주

◆ 승합 대형택시 승차정원 개선(13인승 → 15인승 이하)

→ 외국인, 단체 관광객 서비스 다양화와 대형택시 활성화를 위하여 승차정원을 개선

◆ 승합 대형택시 전국 확대 시행

→ 승합 대형택시는 특별시 및 광역시는 2016. 02. 23, 그 외 택시 사업구역은 2019. 01. 0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도 단위 지역의 단체 관광객 서비스 개선, 타 지역과 형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국 확대 시행

◆ 개인택시 범규위반자 다중 행정처분 개선

→ 교통사고 시 운전면허 처분벌점, 형사처벌, 사고보상 및 보험료 인상 등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상 행정처분 제외

◆ 개인택시 질병으로 인한 대리운전 허용 합산기간 개선

→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 합산 기간을 현행 3년 동안 1년을 3년 동안 2년으로 연장하여 원활한 대리운전 허용

◆ 여객자동차 차량 청결상태 검사제도 개선

→ 여객자동차 차량 청결상태 검사는 조합원은 조합, 비조합원은 관할관청에서 받는 형평성 문제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발전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던 것을 조합 단독으로 검사를 확인 하도록 개선

◆ 유가보조금 관련 택시 부제일 주유방법 개선

→ 부제 시작 후 다음영업 준비를 위해 주유(충전)하는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의 조문 해석 개정

◆ 유가보조금 청구 방법 개선

→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여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개선  
· 시중은행에서 시행하는 개선된 통장 발급기간과 동일한 요건으로 개선이 되어야 함.

◆ 부가가치세 납부의 면제 기준 조정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을 “간이과세자의 해당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2천400만원 미만”을“3천6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필요

◆ 택시연료 유종 다양화

→ 공익적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택시이므로 유종 구분 없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연료 선택권 부여

# 강원조합 전 조합원 차량에 캐치미러 장착

## 정차시 후방감시 확대로 사고 예방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주원)과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강원지부에서는 택시 승객의 하차 시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원도 시·군 개인택시에 캐치미러 설치를 추진했다.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공제조합 강원지부에서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 차량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강원지부는 점검 후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예상되는 오토바이, 자전거 추돌방지용 캐치미러를 전 조합원 개인택시에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캐치미러는 뒷좌석에서 승객이 하차 시 후방의 위험대상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갑작스럽게 오토바이가 나타나도 캐치미러로 승객이 확인해,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에 힘들어하는 조합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고예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



▲ 캐치미러를 장착한 차량.

니라 깔끔한 디자인에 차량미관을 해치지 않아 조합원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상당히 크다는 후문이다.

# [미담] 인천조합 김진옥씨 현금돈 지갑 돌려줘

## 인천공항 가는 외국인 승객 이틀만에 찾아



▲ 차안에 놓고 내린 현금이 든 지갑을 찾아 주고 격려하는 인천조합 김진옥씨(오른쪽).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 김진옥씨는 2016년 4월 10일 저녁 부

평에서 인천교까지 가는 외국인(필리핀)을 태웠다.

별다른 이야기 없이 목적지에 내려준 뒤 의자 밑에서 지갑을 발견하고 승객을 찾으려 했으나 승객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지갑을 열어보니 수표와 현금 약 130만원 가량이 들어 있었다.

김진옥씨는 외국에 와서 열심히 돈을 벌며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돈을 보내야하는 사람의 심정을 생각하니 속히 찾아주고 싶었다.

그는 다음날 수표가 기재된 은행에서 승객의 정보를 파악하고 만나서 돌려주었다.

개인택시 씨클 부운회 회원이기도 한 김진옥씨는 승객이 건넨 사례금 일부를 손사례로 사양하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고 한다.



공제경쟁력을 말하다

# 의료연수중급과정 교육현장을 가다

재활의학과 척추손상, 상·하지골절 등 6개 과목으로 진행

지난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보험연수원에서는 의료연수중급과정 교육이 실시 됐다.

이번 교육은 우리 개인택시공제조합을 포함한 5개의 육운공제조합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 됐으며, 우리 공제조합은 대인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직원 8명이 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재활의학, 척추손상, 상지골절, 하지골절, 두부외상, 척추손상의 총 6개 과목으로 진행됐다.

배상의학계에서 실력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전문의들이 강사로 나서 기초의학 이론과 그에 따른 여러 사례들을 접목한 심도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우리 공제조합은 매년 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상담당직원들은 업무 특성상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

특히 대인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보상이론 뿐 아니라 의학이론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만, 공정하고 정확한 보상업무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개인택시공제조합은 대인보상실무, 의료연수초급, 의료연수중급, 의료연수특과, 의료연수특별과정 등을 운영하여 보상담당직원들의 업무능력 함양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된 의료연수 중급과정은 대인보상실무과정과 의료연수초급과정을 이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이며,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취재를 위해 교육과정을 직접 들어보니, 꽤 수준높은 강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의료연수과정에 우리 공제직원 8명이 참석해 그중 한 명이 교육평가 1등을 차지했다.

강의를 맡은 한 교수는 “이번 과정은 각 공제조합에서 보상 실무 경력이 많이 축적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의학지식이 전무한 일반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교육” 이라면서 “최근 공제조합들이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직원들의 지식이 상당한 수준으로 예전보다 강의 준비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교육 참여 태도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특히 강의 중간중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하나라도 더 얻어가려는 직원들의 열정이 교육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한결같이 이어져 보는 사람을 절로 흐뭇하게 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석한 우리 개인택시공제조합 직원들은 8명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평가를 통과하고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다.

특히 다른 공제조합을 포함한 전체인원 중에서 우리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직원이 교육평가 1등을 차지하여, 최고의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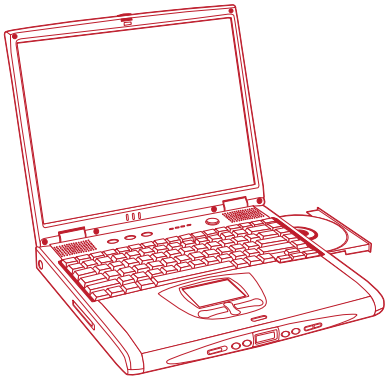
올 2016년도 벌써 중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보여준 직원들의 열정의 에너지가 올해의 마지막날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며 올해도 업무일선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공제조합 직원들에게 마음속으로 응원의 박수를 보내본다.

사람들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

사람이 우선이다.

우리 생활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자동차 그러나 보행자 사고 OECD 1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 이제 우리가 지켜야할 약속입니다.





## 컴퓨터 보안 및 자가진단 방법

### [1]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설정

컴퓨터 부팅시 윈도우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컴퓨터를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없을 경우 누구나 쉽게 컴퓨터에 접근하여 중요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비밀번호 설정방법 : 컴퓨터 하단 왼쪽에 윈도우창을 클릭 제어판 → 사용자 계정 → 계정 및 암호 설정

### [2] 윈도우 업데이트

윈도우 업데이트는 컴퓨터 작동 방식을 향상시키거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 제어판 → Windows Update - 업데이트 설치

### [3] 윈도우 방화벽 설정

윈도우 방화벽은 해커나 악성 소프트

웨어가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 합니다.

사용자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악성 소프트웨어를 보내지 못하도록 방지 합니다.

◎ 제어판 → Windows 방화벽 → Windows 방화벽 설정 또는 해제 → 홈 또는 회사(개인) 네트워크 위치 설정 / 공용 네트워크 위치 설정 → Windows 방화벽 사용 선택

### [4] 화면보호기 설정

화면보호기를 사용해 부재 중에도 중요 문서 및 자료를 타인으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 보호기 대기시간을 설정해 사용하기 바랍니다.

◎ 제어판 → 개인설정 → 화면보호기 → 대기시간 선택

### [5] 백신사용

신뢰할 수 있는 백신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설치 사용 하십시오.

정기적으로 백신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및 검사를 통해 외부 바이러스로부터 사용자의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개 무료 백신은 각종 악성코드 및 해킹, 툴바설치 등 기타 부작용을 발생시키므로, 무료 프로그램등은 삭제 또는 사용하지 마시고 제거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 [6]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설치 사용하기 바랍니다.

### [7] 메일 및 메시지를 통한 파일 다운로드 및 USB메모리 사용시 바이러스 검사

신뢰할 수 없는 메일이나 타인의 USB 메모리를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 파일 다운로드를 받거나, USB를 사용시 바이러스 검사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4월부터 시행

올해 4월1일 계약자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교통 사고 후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을 대여받을 수 있는 렌트카업체가 지자체에 등록된 렌트업체로 한정되며 또 피해차량의 연식과 무관하게 동종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트비를 지급되었던 것이 피해차량과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렌트차량을 제공하도록 렌트차량 제공방식도 개선되었다.

또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보험사가 수리비상당액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개선하여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용을 보상하도록 하여 보험금의 누수를 억제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과도한 렌트비 지급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부담 완화가 기대되며 고가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예방에 크게 기여하여 공제조합의 손해를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범퍼의 가벼운 굽힘 등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사고는 부품교체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표준약관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 “당신의 행복에 녹색신호등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의 중심,  
선진 교통문화의 리더,  
도로교통공단은 도로와 사람이 만나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듭니다.

**KoROAD**  
도로교통공단



건강상식

# 제때 치료 안하면 나이 먹어서 골병드는 교통사고 후유증

규모가 크든 작든 교통사고를 한 번쯤 경험해본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가 바로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더 무서워! 제때 치료 안 하면 나이 먹어서 골병 든다”는 말이다. 하지만 바쁜 현대에 눈으로 드러나는 증상과 극심한 통증이 없는 한 치료를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허리가 아프고 없던 두통이 생기고 몸이 천근만근이 되는 것처럼 피곤해지기 시작한다면 이미 증상이 악화되었거나 진행되어 있는 상태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통증이 파급되기 때문에 초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코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교통사고, 여러 가지 이상 증상과 병을 키우지 않는 지름길을 알아보자.

## <교통사고 후유증의 한의학적 치료법>

**· 침 치료** | 교통사고 후유증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기가 문란해지고 흩어진 것을 바로 잡는 것이다. 특히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될 때는 침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다. 반복적인 침 치료로 기의 흐름이 바로 잡히면 몸은 어느 정도 스스로 회복된다.

**· 부항 치료** |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전신 타박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어혈은 우리 몸의 ‘죽은피’로 혈관에 흐르는 피와는 달리 조직과 세포사이에 고여서 기와 피의 흐름을 방해한다. 교통사고를 당한 직후 별로 아프지 않다가 수주에서 길게는 몇 년이 지난 후 몸 여기저기에 통증을 유발한다. 어혈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차 통증이 유발되므로 반드시 아픈 부위에 피를 뽑는 부항치료를 해야 한다.

**· 추나 치료** | 추나는 일종의 수기요법으로 뼈가 어긋난 것, 근육이 경직된 것을 손으로 푸는 것이다. 마사지와는 개념이 다르며 뼈의 위치를 조절해 통증을 제한다. 임신부의 골반통이나 허리디스크가 있던 분에게 효과적이다.

**· 뜸 치료와 온열요법** | 교통사고가 발생한지 오래됐거나 나이가 많으면 교통사고 후 전신이 아프고 비가 오면 온몸이 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몸의 심부체온을 올려 전신의 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통증경감의 효과가 있다.

**· 한약 치료** | 교통사고 후유증에 따른 한의학적 치료 중 가장 특징적이고 중요한 것이 한약치료이다. 어혈과 타박으로 인한 심부조직의 손상, 기의 문란한 한약으로 치료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효과와 호전속도에서 차이가 난다. 특히 보이지 않는 부분의 미세한 손상이 몇 년 뒤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교통사고 후유증의 다양한 증상>

### 1. 통증

① 목과 허리통증 | 교통사고는 차의 뒤쪽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과 허리 통증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몸이 휘어지면서 허리와 목이 의자 뒤에 부딪혀 타박상을 입게 된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디스크로 이어지거나 두통이 발생하게 된다.

② 무릎통증 | 무릎이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생기는 경우와 원래 관절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갑자기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어혈(죽은피)로 인해서 허리나 등이 아프다가 무릎으로 내려오기도 한다.

③ 두통 | 직접적으로 머리를 부딪쳐서 오는 경우와 교통사고 후 놀란 것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있다. 사진 검사 상으로도 뇌에 특별한 이상이

생긴 경우보다는 뇌진탕 증세가 보편적이다.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고 구도가 날 것 같거나 울렁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 2. 소화불량

교통사고는 갑작스런 충격이 몸에 가해진 것이기 때문에 놀라서 소화불량 증세를 동반하기도 한다. 앓혀있는 증상이나 미식거리고 식욕이 없는 증상이 발생한다.

### 3. 피로

잠을 자도 회복되지 않고 늘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으며 피곤한 증세가 발생한다.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호전반응이기도 하고 기의 흐름상의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세이기도 한다.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성피로로 이어질 수 있다.

##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조합원 및 가족들을 위한 제휴이벤트

# 4가지 무료 이벤트 (택 1)



**김민정 원장** 교통사고 / 통증  
한방성형 / 다이어트 전문 한의사

교통사고 전문 한의사 김민정 원장은 통증, 후유증과 관련된 다양한 임상치료 경험을 보유한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궁중침술’과 ‘편백나무 썩뜸’을 이용한 심열충 치료법, ‘추나요법’ 등 교통사고 치료분야에 특화된 진료로 많은 환자분들께서 믿고 찾을 수 있는 한의사입니다. 실력이 탄탄한 한의사,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아는 센스있는 한의사 김민정 원장입니다.

1. 전립선, 만성요통  
좌훈치료 1회 무료  
+물리치료 3중세트 1회 무료 +한방파스 1개 무료
2. 한방 동안침(가족포함) 1회 무료
3. 목 디스크와 허리디스크  
등 뜸 치료 1회 무료  
+물리치료 3중세트 1회 무료 +한방파스 1개 무료
4. 한방다이어트  
다이어트 한약 10% DC + 한방팩 1회 무료  
+안구마사지 1회 무료

**01. 진료시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AM 09:00 PM 10:00	AM 10:00 PM 08:00	AM 09:00 PM 10:00	AM 09:00 PM 10:00	AM 09:00 PM 10:00	AM 09:00 PM 04:00

일요일/공휴일 휴진

**02. 오시는길**

강남역 1번출구

강민정한의원

**상담문의**  
02.566.914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5-11 신일유평빌 2층

**1. 한의원 방문 상담 또는 치료시에 무료이벤트가 적용가능합니다.**

**2. 예약 및 내원시 운송사업조합 조합원 및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특별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수 목 금 - 오전 9시~ 오후 10시(야간진료)  
화 - 오전 10시~ 오후 8시 / 토 - 오전 9시~ 오후 4시

☎ 개인상담 및 예약문의 02-566-9144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5-11 신일유평빌 2층

## 택시 전용차 신차 출시 특집

기아자동차는 지난 1월 2세대 완전 변경모델 신형 K7를 출시했다. 현대자동차도 4월 20일부터 운전자 편의사항을 대폭 강화한 2017형 쏘나타 판매에 나섰다.

16만 개인택시 사업자의 차량선택을 돕기 위해 연합회 신문은 제1부 현대기아자동차, 제2부 한국 GM으로 나누어 신차 특집 기사를 봄호와 여름호로 나누어 마련했다.

- 한국 GM -

# 완벽한 변화, 쉼보레 올 뉴 말리부 택시전용차 출시!

## 차급을 뛰어넘는 차체 크기와 첨단 사양으로 중형 세단의 새로운 기준 제시

글로벌 브랜드 쉼보레(Chevrolet)가 27일 국내 최초 돔구장인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쉼보레 중형 세단 말리부(Malibu)의 신차 공개행사를 갖고, 국내 중형 세단 시장의 지각변동을 선언했다.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의 차세대 신제품 라인업에 적용되는 진일보한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신형 말리부는 동급 최대 길이의 차체와 휠베이스(축거)가 선사하는 스포티한 디자인과 안락한 승차공간을 갖췄으며, 고강도 경량 차체와 최신형 터보 엔진이 발휘하는 극적인 주행성능은 물론, 다양한 첨단 능동 안전 시스템으로 무장했다.

제임스 김(James Kim) 한국지엠 사장은 "쉐보레 말리부는 아키텍처와 디자인, 파워트레인, 새시 및 안전 시스템 등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변화를 이뤄냄으로써 국내 중형 세단 고객들의 기대를 상회하는 가치를 선사할 것"이라며, "말리부의 압도적인 제품력과 공격적인 가격정책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GM 중형 세단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개발된 신형 말리부는 기존 말리부 대비 93mm확장된 휠베이스와 60mm 늘어난 전장을 갖춰 중형차는 물론 준대형 차급을 넘나드는 압도적인 차체 크기를 선보인다.

신형 말리부는 확대된 차체에도 불구하고 초고장력 강판 사용 비중 증가와 진보

한 차체 설계 기술을 통해 이전 모델 대비 130kg의 차체 경량화를 달성해 동급 최고 수준의 연료효율과 다이내믹한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

### ◆ 중형 세단 디자인의 경수

신형 말리부는 동급 최대를 자랑하는 4,925mm의 차체 길이에 극적인 비례감과 스포츠 쿠페 스타일의 감각적인 라인을 결합해 쉼보레 제품군이 선보이는 새로운 시그니처 디자인 혁신의 정수를 담았다.

특히, 매끄럽고 날렵하게 뺀 HID 프로젝트 헤드램프와 LED 주간주행등이 연출하는 선명하고 스타일리시한 감각은 쉼보레 제품 라인업의 새 패밀리룩을 상징하는 강렬한 듀얼 포트 그릴이 그려내는 웅장하고 다이내믹한 인상을 완성하며, 입체적인 사이드 캐릭터 라인이 형성하는 드라마틱한 바디라인과 함께 긴장감 넘치는 말리부의 디자인을 연출한다.

또한, 차량 후방의 원활한 공기 흐름을 위해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적용한 LED 테일램프와 에어로 스포일러 기능을 고려해 디자인된 트렁크 라인, 그리고 언더바디 에어로 패널이 차량 하부의 공기를 제어하며 최적의 효율을 돕는 한편, LED 주간주행등과 길

게 뺀 LED 후방보조제동등은 스포츠 쿠페를 연상시키는 날렵한 C필러와 만나 한층 감각적이면서도 기능에 충실한 후면부 디자인을 완성했다.

한국지엠 디자인센터 스투어트 노리스(Stuart Norris) 전무는 "낮고 날렵한 차체가 지닌 자신감 넘치는 스탠스와 과감하고 독특한 라인 및 첨단 기술이 접목된 말리부의 디자인이 한국 고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 ◆ 중형 세단 파워트레인의 새 기준

신형 말리부는 동급 최고 연비를 자랑하는 1.5리터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과 동급 최대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2.0리터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을 채택했다.

GM 신형 터보 엔진 라인업의 4기통 1.5리터 엔진은 166마력, 25.5kg.m의 월등한 최대 출력과 토크를 바탕으로 기존 2.0리터 자연흡기 엔진을 완벽히 대체하는 한편, 기본 탑재된 스태빌리티 컨트롤 시스템과 다운사이징 경량화를 통해 복합연비 13.0km/ℓ에 달하는 동급 최고 수준의 효율을 실현했다.

고성능 고효율 1.5리터 터보 엔진과 맞물린 3세대 6단 자동변속기는 검증된 내구성을 통해 효율적인 엔진 구동력 전달과 부드러운 변속감으로 향상된 주행 품질을 제공한다.

한편, 캐딜락(Cadillac) 브랜드

의 퍼포먼스 세단 CTS에 적용된 바 있는 4기통 2.0리터 직분사 터보 엔진은 253마력의 동급 최대 출력으로 기존 중형 세단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던 강력한 퍼포먼스를 선사하며, 최적의 변속 타이밍으로 최대 출력 260마력까지 완벽히 대응하는 3세대 6단 자동변속기와 결합해 폭발적인 가속 성능과 차급을 뛰어넘는 주행감을 연출한다.

중형 세단 최고의 승차감과 운동 성능으로 인정받아 온 말리부는 새 경량 아키텍처와 함께 개발된 전문 맥퍼슨 스트럿 타입 서스펜션(McPherson Strut-type Front Suspension)과 후륜 멀티 링크 독립현가 시스템을 적용해 향상된 노면 대응력과 민첩한 운동성을 실현했다.

또한, 보쉬(BOSCH)의 첨단 기술력이 더해진 프리미엄-렉타입 파워스티어링 시스템, 상시 일정한 답력과 제동성능을 유지하는 듀라라이프(Duralife™) 브레이크 로터 등 동급 최고 수준의 조향 및 제동 시스템을 제공한다.

### ◆ 준자율주행 수준의 능동 안전 시스템

신형 말리부는 포스코로부터 공급받는 고품질의 초고장력 강판을 광범위하게 적용해 개발한 고강도 차체설계를 통해 최고 수준의 충돌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전 트립에 기본 적용된 동급 최대의 8개 에어백이 전방위에서 탑승자를 보호한다.

신형 말리부는 최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실시한 2016 신차 평가 프로그램(New Car Assessment Program)의 안전성 종합평가 부문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탁월한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

한편, 업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능동 안전 시스템을 적용한 말리부는 총 17개에 달하는 초음파 센서와 장/단거리 레이더 및 전후방 카메라를 통해 차량의 주변을 상시 감시하며 잠재적인 사고를 예방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갖췄다.



동아리탐방

[ 전주조합 사람·산 산악회 ]

# 한달에 한 번씩 전국 유명산을 산행하여 심신을 단련한다

## 금연·금주·산행 안전수칙 철저히 지킨다



▲ 전남 순천시 조계산의 겨울 산행으로 겨울 정취를 즐겼다.

“눈 덮힌 겨울산은 세상이 깨끗해서 좋고 꽃 피는 봄산은 아름다움과 향기가 있어 좋고 녹음이 우거진 여름산은 푸르름이 있어 좋고 단풍과 풍요로움이 있는 결실의 계절 가을산은 넉넉함이 좋지요.”

진흥조 사람·산 산악회장은 1년 4계절 동안 산의 아름다움은 변함이 없다고 감탄한다. 언제나 넉넉한 자연의 품으로 사람을 안아주는 산은 등산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을 포근하게 하면서 몸을 튼튼하게 하는 에너지여서 산악회의 이름을 ‘사람·산’으로 정했다고 말한다.

사람·산 산악회가 창립된 것은 2013년 12월 4일 오후 전주조합 다조 조합원 20여명이 모여 겨울산을 오르면서 시작했다.

초대 회장 류근수 조합원을 비롯 20여명은 ‘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비영리적으로 하며 협동정신으로 화합, 단결해 회원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고 산악회 정관을 제정하고 출범했다. 사람·산 산악회는 짧은 기간 동안에 45명으로 회원이 크게 늘었다.

매월 초순경에는 전주시 근교, 중순경에는 전세버스로 이동하는 전국 유명산 순례를 하는 산악회의 산 사랑은 유별나 지난달까지 지리산, 한라산, 설악산 등 37산을 다녀왔다.

사람·산 산악회는 산행 시 엄격한 규칙이 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행시에는 이주섭 산악대장의 지휘아래 선두대장, 중간대장, 후미대장을 임명해 회

원들의 체력별로 대열을 형성해 산행을 하고 금연, 금주를 원칙으로 한다.

“산악회 창립 이래 아직까지는 크고 작은 사고 없이 단체 산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이 철저한 등산수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주섭 산악대장은 말한다.

건강 못지 않게 회원들의 친목과 화합을 원칙으로 운영하는 사람·산 산악회는 월회비로 걷는 2만5000원으로 산악경비를 충당하고 애경사는 산악회에서 공식적으로 축의금, 경조금을 지급하고 회원들이 개별로 축하와 슬픔을 같이 한다.

협회를 이끄는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특히 회장 선거는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회장에 출마하는 회원은 총회 1주일 전까지 회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고 선거는 의사정족수는 정회원 2/3이상으로 정하고 최고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임원은 ▲회장 ▲총무 ▲재무 ▲산악대장 각각 1인과 감사 2인이다.

좁은 택시운전대에 갇혀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산 산악회 회원들이 선택한 건강법인 등산은 하체 근력과 심폐기능 강화는 물론, 쌓인 스트레스까지 해소되면서 힘든 등산으로 한걸음씩 걸음을 옮겨 정상에 오르는 인내의 교훈을 배우고 승객에 대한 무한 친절을 베풀어 간다.

(글·이진영)



▲ 산악회원 가족까지 함께한 고창군 선운산의 가을산행... 회원들은 단풍이 물든 선운사의 빼어난 풍경과 선운사의 웅장함에 감탄했다.

**HYUNDAI**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 장거리, 장시간 주행이 많은 TAXI 일 수록 견고한 BODY는 필수입니다

## 2017년형 쏘나타 TAXI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실시한 충돌테스트에서 쏘나타는 **최우수 등급 TSP+** 를 받았습니다  
쏘나타 택시, 안전성으로 또 한번 앞서갑니다



**SONATA**

**최상의 안전성을 위해** | 초고장력강, 핫스탬핑 부품확대로 강해진 BODY



• 7 에어백시스템 • 충격저감시트(완좌석) • 사시통합제어시스템(VSM)  
• 시트벨트 안전장치 •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편안한 드라이빙을 위해** | 운전자의 움직임에 따른 인간공학설계



• 조작감이 우수한 스티어링 휠 • 쉽고 감성적인 즐거움을 주도록 설계된 인체공학설계 실내  
• 열선/통풍기능과 4Way 렘버썬포트(운전석 적용) • 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

**안정적 퍼포먼스를 위해** | 동급 최고수준의 R&H 성능을 통한 균형잡힌 주행감성



• 후륜 듀얼로어암 멀티링크 타입 서스펜션 / 전륜 맥퍼슨 스트럿 타입 서스펜션  
• 속도감응형 전동식 파워스티어링(MDPS) • 언더커버 • 누우 2.0LPI엔진

■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월콜 서비스 080-600-6000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2.0 LPI (AT) 복합 : 9.6km/ℓ (도심:8.3km/ℓ 고속도로:11.7km/ℓ) CO2 배출량: 140g/km 배기량: 1,999cc 공차중량: 1,465kg 지동6단(4등급) -2.0 LPI (MT) 복합 : 10.1km/ℓ (도심:9.2km/ℓ, 고속도로:11.5km/ℓ) CO2 배출량: 132g/km 배기량: 1,999cc 공차중량: 1,450kg 수동6단(4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현대자동차는 지점/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쁜 거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bluehands** 전문인사서비스 blue hands가 책임집니다 화재보험/물류보험/개인서비스/건강보험/물류보험/연세서비스